

대중가요의 술사랑



고대길 전무이사
대한주류공업협회

희로애락과 함께하는 술

우리들 삶의 시간은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채워진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아울러 있으니, 기쁨은 더 기쁠 수 있고 노여움은 풀 수 있으며, 슬픔은 잊을 수 있고 즐거움은 함께 할 수 있어 보인다. 언제나 기쁨만 있다면 김손을 잃기 쉽고, 노여움을 계속 간직하고 다닌다면 스트레스에 찌들어 심신이 병들 것이며, 항상 슬픔에 젖어 있다면 용기를 잃게 되며 활력이 없을 것이며, 즐거움만 찾다 보면 게으르고 방종하게 될 것이다.

우리네 마음을 읽게 하는 대중가요 가사에는 인생에 희로애락의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어 말 그대로 대중과 함께 하는 문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대중가요라 할 수 있는 詩經(동양 최고의 시집으로 당시 전례된 시 3000여편 중에서 孔子가 311편을 뽑았다고 한다. 민요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305편이 현존하고 있다)은 儒家의 경전인 四書 三經중 周易, 書經과 함께 三經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대중가요 속에는 술에 대한 가사가 흔하게 노래로 불러워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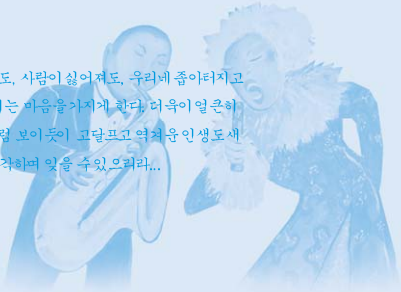
이정희의 '한잔의 추억', 나훈아의 '술이 부르는 노래', 신기철의 '술아란', 김준규의 '건배', 박용영의 '뭍 한모금, 술 한모금, 사랑 한모금' 등 수없이 많이 있다. 가사내용을 보면 기쁨을 만끽하고, 노여움을 풀어버리고, 슬픔을 빨리 잊거나 체념하여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며,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슬픔을 잊게 하고 용기를 주는 술

술은 희로애락과 함께 하면서도 그중에 슬픔을 빨리 잊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주는 데는 대중음악과 술이 서로 어우러져 제일 효과가 있는 특효약인 듯하다.

'한잔의 추억' 가사에 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술잔위에 어리는 얼굴을 떠올리면서도 잊어 버려야겠다며 마



한잔의 술은 세월이 미워져도, 인생이 고달파도, 사람이 싫어져도, 우리네 좁아터지고
웅졸한 마음을 달래주어 오해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더욱이 얼큰히
홍조를 띠 때 세상을 보면 호박꽃도 장미꽃처럼 보이듯이 고달프고 역겨운 인생도 새
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아름다운 내일을 생각하며 잊을 수 있으리라...

시는 한잔의 술, 잊어버려버리지만 어디선가 부르는 것 같아 뒤돌아보지만 보이는 건 외로운 내 그림자 뿐이여
서 다시 또 있어야 겠다면서 외로움을 달래며 마시는 한잔의 술, 외로움과 체념만 있어 보이지만 한잔의 술이 있
어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새기는 여유를 갖게 하고 있다.

'마시자~ 마셔버리자' 로 끝을 맺지만, 그리움은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으
리라.

'술이란' 기사에서는 생활속 술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월이 미워질 때 술을 따르면 인생사 고달픔도 잊게 해주는 한잔의 술엔 한수의 시를, 두잔 술엔 풍류를 담고
그 술잔에 의리와 낭만 추억을 타서 마신다. 세월이 미워질 때 술을 따르면 인생사 고달픔도 잊게 해주는 술이라
그 맛에 마신다던가.

한잔술엔 철학도 있고 두잔술엔 가락도 좋지만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던 그때가 그리웁구나.

얼큰히 홍조 띠 때 세상을 보면 호박꽃도 장미처럼 곱기만 하여 술이란 그 맛에 마신다던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 고통이 없고 마음이 서로 막히면 고통이 뒤따른다는 通則不通則痛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잔의 술은 서로의 마음을 이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한잔의 술은 세월이 미워져도,
인생이 고달파도, 사람이 싫어져도, 우리네 좁아터지고 웅졸한 마음을 달래주어 오해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더욱이 얼큰히 홍조를 띠 때 세상을 보면 호박꽃도 장미꽃처럼 보이듯이 고달프고 역겨운 인생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아름다운 내일을 생각하며 잊을 수 있으리라...